

삼성 · LG, 미국 TV 가격담합 피소

삼성전자와 LG전자, 필립스전자(Philips)가 컴퓨터 모니터와 TV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 당국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월19일 보도했다.

리사 매디건 미국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3사가 담합해 컴퓨터 모니터와 TV 원가를 높였다고 주장했다.

<화학저널 2012/09/19>